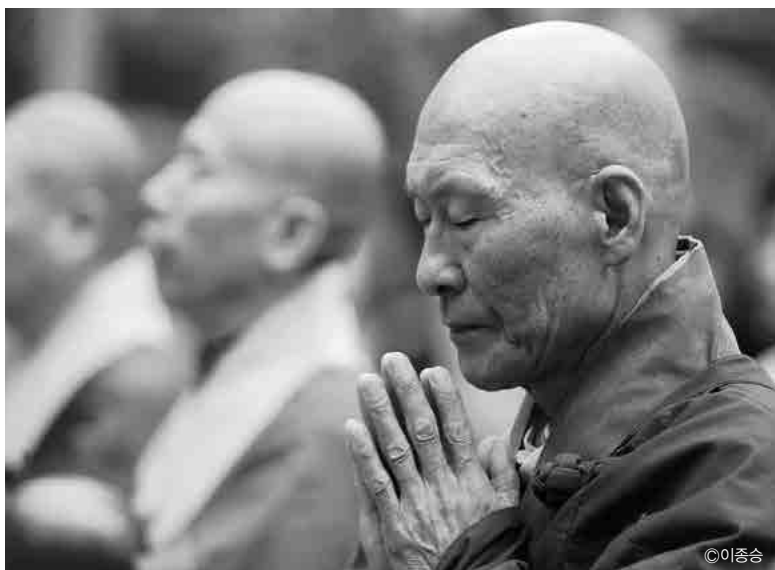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이종승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12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나누는 삶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자비심이 곧 여래
일기일회	08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나누는 삶	14	나누는 삶
법정 스님의 숨결	28	소유와 쓰임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31	함께 사는 세상
법정 스님의 애송 선시	35	눈길을 걸을 때
법정 스님의 산중 편지	36	고통 바다에서 헤매는 내 이웃을 건지리라
법정 마음의 온도	38	맑은 가난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0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310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德祖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자비심이 곧 여래

글 • 법 정(法 頂)

보살이 보시(布施)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줌했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만약 보시 받을 대상이나 그 결과를 따진다면 끝내 보시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보시하지 않으면서 보시 바라미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라미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도 없다. 보살이 보시를 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이웃을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 병든 이웃을 보면 부모가 병든 자식을 대하듯 가없이 여겨

보살펴주고, 즐거워하는 이웃을 보면 병든 자식이 다 나은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뒤에는 다 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듯이 해야 한다.

〈열반경 범행품(梵行品)〉

보시를 흔히 베푸는 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나누는 일이다. 자기 것이 있어야 베풀 수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때 맡아가지고 있는 우주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베푸는 데에는 높고 낮은 수직관계가 생기지만, 나누는 데에는 수평

적인 유대를 이룬다. 이 나누어 가지는 보시에 의해 우리에게는 비로소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보살행 중에서 보시를 제1바라밀이라고도 한다.

바라밀이란, 옛 인도말 ‘파라미타’의 음역이다. 온갖 모순과 갈등으로 뒤얽힌 우리들의 일상此岸에서 벗어나 그런 고뇌가 없는 해탈의 경지彼岸에 도달한 것을 바라밀이라고 한다.

보시를 통해 보시 바라밀을 갖추 수 있고, 그 보시 바라밀이 또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 바른 깨달음이란 자기 완성이란 뜻이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여건이나 환경에도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증오심과 무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적인 관점이다. 그럼 그 탐욕과 증오심과 무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우선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나누어 갖는 습관, 즉 보시행을 행하라는 것이다. 자기에게 축적된 것을 자꾸만 퍼내는데 바깥 것에는 돌릴 겨를이 어디 있겠느냐는 논리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어 가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꾸 나누어주다 보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그럴듯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을 그런 샘을 가지고 있다. 퍼낼수록 더 맑게 고이는 ‘밑 없는 샘’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쌓여 있지 않은가. 그걸 이리 치우고 저리 치다 꺼리하면서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진장의 창고다. 다만 그것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하나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문이 조금씩 열린다. 그 문이 활짝 열려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고 얽힘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나누어 가질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받을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것. 자기를 돌아보면 마음이 열릴 수 없다. 이 다음에 쓸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자기 식구들 몫을 염려한다면 열리려던 문도 다시 닫히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나누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것을 분별 망상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앞뒤가 툭툭 트인 환철한 마음인데, 그런 분별 망상 때문에 스스로 갈등이

생겨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다. 일반인과 신앙인이 다른 점은 자기 마음을 열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곧 우리들 자신을 여는 일이다. 그러니 나누어 가질 이웃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끝내 열릴 기약이 없다.

또 나누어 가질 대상이나 그 결과를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저쪽에서 알아주건 말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 나누는 일은 오로지 내 일이기 때문이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벌써 때묻은 마음이다. 모처럼 열리려던 마음이 반쯤 열리다가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과 주는 물건, 이 셋이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을 때 진정한 보시이고 청정한 보시라고 경전에서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칼릴 지브란은 그의 <예언자>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아낄 만한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느 날엔가는 다 주어지고 말 것을. 그러니 주라. 지금 당장 주라. 때를 놓쳐 뒷사람의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나그네다.

모자랄까 봐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이 곧 모자람이다. 나누어 가질 때 이웃과의 유대가 생기기 때문에 내 영역이 그만큼 확산된다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

<열반경 범행품>에서는 뒤이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일으키면 한량없는 선행(善行)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하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여래(如來)다.”

여래란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는 뜻. 자비심을 일깨울 때 우리는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한 한 걸음씩 여래가 되는 것이다. 1984

• 발췌 : 「물소리 바람소리」



부자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라

글·법 정(法 頂)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제 삶의 자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과연 잘 산 한 해였는지 잘못 산 한 해였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그 말이 실감납니다. 하지만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세월은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사물과 현상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 자체는 항상 존재합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을 뿐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오고 가

고 변해 가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시간 자체나 세월이 덧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늘 한결같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덧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애 중에서 한 해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들은 한 살이 보태집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한 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 생이 무척 아깝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되찾

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선방에 가면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생사사대 무상신속(生死事大 無常迅速)’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나고 죽는 일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생사입니다. 우리 삶에서 생사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생사 속에서 무엇이 받쳐 주고 있는가? 무상이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잘못 먹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한 생각 바로 정신을 차리면 바른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는

분이 택시를 타고 길상사로 가자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아 그 부자 절 말이죠?” 하더랍니다. ‘부자 절’이라는 그 말이 제게는 한동안 화두가 되었습니다. 8년 전 이 절을 처음 만들 당시, 교회나 절 어디 할 것 없이 물질이 넘치고 과소비가 지나치기 때문에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에서겠지만 길상사를 부자 절이라 일컫는 것을 보고 매우 착잡했습니다. 요정이던 대원각을 절로 만들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었습니까? 땅이 수천 평이고 땅값만 수백억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자절이라는 인상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러 곳에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주로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을 저의 개인 소유로 잘못 알고 도와 달라는 편지들이 와서 곤혹스

러웠습니다.

부자의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부자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간단명료하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항목 아래에 이런 속담들이 나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부자에게도 한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긁어모은 결과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

저는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속담입니다. 옛날에는 지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나 일제강점기 때 못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얼마나 많이 수탈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것은 그 인근 사람들이 다 착취당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는 탐욕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탐욕이란 지나치고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이면 만족할까요? 이것은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겠지만 행복은 가진 것에 의해서 추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며 살고 누군가는 불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너나없이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소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자기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적 침략입니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고 투기 같은 것으로 급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

니다. 갑작스런 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그릇에 채울 만큼만 지녀야 하는데, 훨씬 많이 채우려고 하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삶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착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삶의 질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공것은 없습니다. 횡재를 만나면 반드시 횡액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과관계입니다. 물질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는 홀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늘 동반합니다.

20여 년 전 어느 절에서의 일입니다. 한 스님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난데없는 행운에 착실하게 기도를 하던 스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우선 은사스님한테 자동차를 한 대 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안 있어 자기도 차를 사고,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니 결국 동네 처녀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 후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는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맑은 가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소비와 넘침에서 벗어나 맑고 조출하게 가질 만큼만 갖자는 뜻입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가진 것이 많은 적든 덕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남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근본적으로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우주의 선물이 내게 잠시 맡겨졌을 뿐입니다. 바르게 관리할 줄 알면 그 기간이 연장되고, 마구 소비하고 탕진하면 곧 회수당합니다.

뜻밖의 물질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정당한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쓰면 덕을 쌓고 잘못 쓰면 복을 감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늘 부유하란 법 없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계속 가난하란 법 없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과 작별하게 될 때 무엇이 남습니까? 홀로 있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평소에 지은 업을 가지고 갑니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평소에 지은 업만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다음 생을 이룹니다. 무엇이든 잡자기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스님들 중 이번 생에 처음 출가한 사람은 쉽게 정착하지 못합니다. 2, 30년이 나 승가에 몸담았으면서도 택시 운전사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몇 생을 이 길에서 닦은 사람들은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업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가가 곧 다음의 나를 형성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스스로가 다음 생의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길상사를 일부에서 부자 절이라고 한다니, 과연 그렇게 불릴 만한 절인지, 이곳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신

도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청정한 수행과 올바른 가르침으로써 믿고 의지하는 도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고 길상스러운 부자 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사십시오.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사십시오.

- 2005년 12월 11일

길상사 창건 8주년 기념법회

•발취 : 「일기일회」

나누는 삶

글·법 정(法 頂)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한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나누어 가질 때 개인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개인은 한낱 국지적_{局地的}인 실재_{實在}로서 특수한 환경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국지적인 실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살아 움직이는 보편적인 존재다. 인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나누어 가짐, 즉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아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사랑을 통해 스스로 해방시킨 사람들이야말로 내일의 인간이라 할 것이다.

나누어 가짐에는 미묘한 율동_{律動}이 따른다. 기쁨을 나누어 가질 때 그 기쁨은 몇 곱으로 늘어나 만인의 것으로 확산된다. 또한 슬픔이나 고통을 나누어 가질 때 그 슬픔과 고통은 몇 갑절 가벼워진다. 사랑이란 종교적인 논리를 빌릴 것도 없이, 나누어 가짐이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도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는 그런 나눔이다.

*

자기만을 알거나 자기 개인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 물을 것도 없이

불행하다. 그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와 남 사이에 장벽이 없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꽃향기처럼 배어나온다. 사람은 이웃으로 향한 따뜻한 눈길과 손길에 의해서만 자아의 굴레에서 놓여 날 수 있다. 마음과 전 존재를 내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

탐욕을 갈애(渴愛)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불선의 뿌리인 것은 지나친 소유욕이고 끈질긴 집착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굶어모아서 자기 것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모자라기만 하는 갈증의 상태이다. 물질만능과 재화의 부피에 가치의 척도를 두고 있는 소유 지향적인 이 시대의 우리들은 거의 모두가 이 탐욕의 노예들이다. 좀 듣기 거북한 표현 같지만 악의 신자들이라는 말이다.

*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 있고, 혹은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그러면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이 곧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관계에 의해 존재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을 심화시킨다.

흔히 베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 우주의 선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그 선물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가 가지고 나온 사람 있던가? 또한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해서 무엇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가?

*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찌 물건만이겠는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어 가짐이다. 그러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그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다. 마지못해 싫은 생각으로 준다면 그에게는 그 싫은 마음이 곧 그 값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나눌 바에야 즐거운 마음으로 선뜻 나누어야 한다. 기쁨

이 없는 봉사는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봉사받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한걸음 나아가 신문이나 방송에 이름 석 자 내려는 생각도 없고, 어떤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덕행으로 여기는 생각조차 없이 무심히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뒤에 서서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실 것이다. 마치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무심히 하는 일이 우리를 눈뜨게 한다. 봄바람이 메마른 가지에 잠든 움을 틔우듯이.

*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는 일ियो, 나누는 일이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마음이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곧 포만하여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우리들 마음속 깊이 깃든 사랑의 신비는 줄 때에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깃든 가장 아름답고 어진 인간의 뜻을 가꾸는 일이 된다.

사람의 심성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게 고인다. 퍼내지 않으면 흐리고 상한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주는 일 그 자체가 받는 일이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 줄 뿐이다. 사람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우리들 안에 잠들어 있는 인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현대인들은 대부분 덕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눈앞의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뜻을 가꾸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뜻은 곧 덕이다. 덕은 자기희생으로 쌓인다. 덕행은 영혼의 아름다움, 인간을 한없이 높여줄 수 있는 디딤돌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쯤은 짐승도 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타인까지도 사람으로 그들의 일에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다. 남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달힌 내’가 ‘활짝 열린 나’로 눈을 뜰 수 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된다. 내 존재의 영역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나의 세계가 그만큼 넉넉하게 형성되어 간다. 마음이 열려야 사람 속에서 인간을 캐낼 수 있고, 중생 속에 잠든 불성을 일깨울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볼 수 있다.

*

한 개인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개인보다 더 큰 존재, 자기중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인간 정신이 우리를 인간의 길로 이끈다.

개인은 한정된 존재다. 특정한 나라에 살면서 특수한 문화, 독특한 사회, 각기 다른 종교에 소속된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국지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미미하고 덧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부름에 따라 공동체의 사업인 나누어 가지는 일에 참가하면 인간으로서 불멸의 본질이 구현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로따로 보면 개인은 한 사람씩 죽어가지만, 뜻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에는 인간이 되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본질인 그 인간을 찾아내고 드러내야 한다. 진정한 인간의 집합만이 이 지구상에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교가 사회적인 실천 윤리의 바탕을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비다. 이웃을 사랑하여 기쁨을 주는 것을 자_慈라 하고, 이웃을 가엾이 여겨 괴로움을 없애주는 일을 비_悲라 한다. 그러므로 자비는 인간 심성의 승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 존재에 있어 기본적인 구조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불행이 내게 무연하지 않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말은 연기_{緣起}의 공리_{公理}이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

지혜롭게 살려는 사람은 먼저 자비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 자비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베푸는 일상적인 인간의 따뜻한 손길이다. 그에게는 일체가 자기의 세계요 분신이므로 따로 욕심 부릴 것이 없다. 자기 존재는 이웃과 본질적으로 맺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남의 일이 곧 자기 일이다.

*

자비란 기쁨을 나누어주고 슬픔을 거두어준다는 뜻이다. 좋은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괴롭거나 슬픈 일에는 함께 신음하는 것이다. 친구가 좋은 일을 맞이했는데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픔을 보고도 덜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친구라고 할 수 없다. 시기나 질투심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심이다. 동정심은 곧 자비심, 그것은 불심이다. 한 마음이 옹졸하면 중생이 되고, 한 마음이 열려 너그러우면 부처와 보살이 된다.

우리들 자신의 존재 의미는 관계된 대상이나 그 세계를 통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한 생각 꼭 막힌 중생인지, 앞뒤가 활짝 열린 본래의 부처인지 알 수 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은 복이 될 수 없다. 이웃에게도 득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득이 되는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늘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

사람은 홀로일 수밖에 없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요. 서로가 기대고 의지하면서 얽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서로 서로의 이웃입니다.

*

현대의 비극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마다 문을 굳게 닫아걸고 인간의 본성인 사랑을 일깨울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흩어진 돌맹이로 안주하려는 데 오늘의 비극이 있습니다.

*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삼스러운 물음이지만, 그것은 자비의 실현이고 사랑의 실천이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없이 깨달음이 어떻고 견성이 무어라고 지껄이는 것은 빈 골짜기를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이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지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반야 바라밀(지혜의 완성)이란 말을 우리는 <반야심경般若心經>을 통해서 수없이 외우고 있지만 무엇이 지혜의 완성인지 곰곰이 헤아려볼 줄 알아야 한다. 반야를 돌이 아난 지혜(無二智), 혹은 차별이 없는 지혜(無差別智)라고 하는 것도 지혜와 자비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맑은 심성인 보리심 속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발하지 않고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움틀 수 없다. 우리가 보살계를 받아 지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자비의 싹을 틔우려는 다짐인 것이다.

*

우리에게는 한쪽에서 너무 차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많다. 이런 현상이 계층 간에 위화감과 단절의식을 불러일으켜 오늘날 사회 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돈이나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생활수단이다. 그러나 필요한 분량, 즉 생존적 소유가 웃돌면서도 나누어 가질 줄 모르면 불행의 씨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너무 굶어모으거나 지나치게 소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이다.

*

진정한 종교는 교회나 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진실을 스스로 발견해간다. 따라서 참 종교인은 개념화된 신이나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교단의 조직에도 매이지 않으며, 무엇이 참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짜 신인지, 스스로 묻고 탐구하고 알아차리고 눈 떠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기중심적인 고집으로부터, 이기심과 야심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함께 사는 이웃에 눈을 돌려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누어 가질 때 종교는 비로소 제 몫을 하게 된다.

*

세상이 상처투성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일신의 안정과 자유를 위해 돌아앉아 정진한다는 것은, 범죄적인 안일이 아니면 그야말로 웃기는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고통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동료가 되고 이웃이 된다. 자비란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표방하고 있는 종교에 귀의한 자로서의 갈등과 고통이 몸과 마음에 고이고 있다.

*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몫을 더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과 비리로 얼썩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정서가 불안정해서 삶의 진실과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

사랑과 자비는 종교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구체적인 일상의 이웃과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마음씨가 교류될 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진짜와 사이비의 갈림길은 자기중심적인 독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를 일상에 실현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랑이 곧 하느님이요, 자비심이 곧 부처요 보살이기 때문이다. 자비야말로 지성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다.

*

천국은 어디이고 지옥은 어디인가. 이웃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만족할 줄 알고 오순도순 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일 것이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갈등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는가.

*

집이나 논밭 자동차나 가재도구 등 우리 둘레에 있는 것들은 삶의 소도 구요 무대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과 몸담아 사는 장소와 생계 수단 등은 혼이 없는 무대 장치일 뿐이다.

우리는 그 허구적인 배경이나 장치에 헛눈을 팔면서 진짜 삶의 알맹이는 망각하고 있다. 우리들 삶의 마지막 종점에 이를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기울였는가,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일이다.

*

이웃을 기쁘게 해줄 때 내 자신이 기뻐지고, 이웃을 괴롭게 하면 내 자신도 괴로워진다.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평화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감정은 소유되지만 사랑은 우러난다. 감정은 인간 안에 갇히지만 인간은 사랑 안에서 자란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동정과 이해심을 지니는 것, 자연스럽게 이웃을 돕는 일, 낯선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것,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일 등등.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랑이며 친절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웃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이것이 사랑이며 친절이다.

*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 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살아 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 된 도리를 지켜갈 수 있다.

*

나눔이란 이름을 내걸거나 생색을 내지 않고 사소한 일상적인 일로써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끼어들려는 차에 선뜻 차로를 양보하는 일,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 뒤에 오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마음 쓰는 일, 또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열린 문을 붙잡아주는 일,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미소 짓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나눔

아니겠는가. 나눔에는 무엇보다도 맞은편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

나눔이나 봉사에 어떤 보상이 있다면 그건 나누며 봉사할 때의 그 뿌듯하고 흐뭇한 마음일 것이다. 결식 이웃에게 부식을 만들어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회원으로부터 지난 추석 무렵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한 주에 한 번씩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기보다는 그곳에 나가서 한 주 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힘이나마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음에 도리어 위안과 기쁨을 안고 돌아옵니다.

무언가를 주러 가서 도리어 몇 갑절, 한 아름 안고 돌아오니 이렇게 실다운 일이 바로 부처님 법인가 봅니다.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에 모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금요일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눔에는 이와 같이 위안과 기쁨과 고마움이 따른다. 나눌 때 내 몫이 줄어들는가? 물론 아니다. 뿌듯하고 흐뭇한 그 마음이 복과 덕을 쌓는다.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이 주어진 것은 그 건강과 재능을 보람 있게 쓰라는 뜻에서일 것이다. 당신에게 건강과 재능이 남아 있는 동안 그걸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 뜻이 우주에 도달한다.

*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가 평소

이웃에게 나는 친절과 따뜻한 마음씨로 쌓아올린 덕행만이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나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업만 따를 뿐이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

*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대지와 공기와 햇볕과 바람, 나무와 물로부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입은 그 은혜와 보살핌이 얼마이겠는가. 한순간도 우리 곁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 먹고 입고 거처하는 의식주가 모두 자연의 혜택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이런 은혜와 보살핌에 대해서 나누는 일로써 보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몸담아 사는 인간의 도리이고 의무일 것이다.

*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알았던 우리 선인들의 순박한 그 마음씨가 그렇다. 분수 밖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다시 생각할 때다. 탐욕을 이기려면 우선 이웃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만나는 대상마다 보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소유와 쓰임

글 • 변택주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푹푹해지고 더 자비스러워지고 저 아이가 좋아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 어느 법석에서 하신 법정 스님 말씀

집시들은 본디 인도 원주민들이다. 아리아 사람들 침입으로 인도사회에서 최하층 계급 수드라로 주저앉으면서 그 괴롭힘을 피해 페르시아, 발칸반도, 동남부 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옮겨갔다. 집시들 방랑 역사는 기독교 성서에도 나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네 번째 쇠못을 집시 대장장이가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렇게 쫓겨 다니면서 잡초처럼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집시문화를 만들어냈다.

한때 집시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나치는 사십만 명 가까운 집시들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유대인들 학살에는 그토록 떠들썩하면서 집시 학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탄식을 한 사람은, 유일한 집시 출신 작가 맥시모프다. 그렇지만 집시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땅을 찾아 끊임없이 옮겨 다녔다. 집시들이 가장 많이 흘러들어 간곳이 스페인이었다.

집시들은 살아남으려고 플라멩코를 선보였고, 목숨을 건 묘기, 투우를

발전시켜 나갔다. 짐시들에게 가장 너그럽게 해준 대가로 스페인은 이제 플라멩코, 투우를 스페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로 드러내게 됐다.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몸부림 끝에 수 천 년이 흐른 뒤,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짐시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어쩌면 땅을 잃었다는 일조차 떠올리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짐시 말을 연구한 학자들 말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소유, 의무라는 낱말이 아예 없다고 한다. 그만큼 짐시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테다. 차지하지 않아서 외려 더 자유로워진 짐시들. 덜 가진 자유로움과 흥가분함을 짐시문화에서 건져 올려본다.

우주 역사는 약 135억 년이 된다. 이제까지 우주 역사를 1년이라고 가정하고 빅뱅으로 우주가 처음 문을 연 때를 정월 초하루 0시라고 봤을 때, 5월 1일에 은하가 만들어졌고, 9월 1일에 지구가 태어났다. 지구에 처음으로 목숨불이가 나타난 때가 10월 1일이며 엄청나게 많은 종류 목숨불이들이 폭발하며 진화한 캄브리아기는 12월 24일. 공룡이 뛰어다니던 때가 12월 25일이고, 사람이 지구에 첫발을 내디딘 때는 12월 31일 오후 8시쯤 일이다. 사람이 힘을 쌓은 기틀이 된,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인 농업혁명은 20초 전 일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고 외칠 때가 5초 전,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가 4초 전, 르네상스는 1초 전에 일어났다.

불과 20초 전부터 소유라는 개념을 싹 틔워 내 것 네 것을 가리게 되었

는데 그 차지하려는 마음이 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집시 말에 소유, 의무라는 낱말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뭔가를 가지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것은 마치 몸을 가진 존재에게 드리운 그림자나 삶을 따르는 죽음처럼, 또렷하고 틀림없다.

“무소유란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기꺼이 나눠 쓰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들면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집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사랑도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법정 스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소유’이다.

우리에게 소유란 과연 무엇일까? 소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체든 사물이든 간에 그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쓰임새다. 보기를 들면 의자를 가지려고 하는 까닭은 앉기 위함이고, 책을 가지려고 하는 까닭은 그 책에 담긴 이야기, 사상을 내가 익히기 위함이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물이나 대상이 지닌 가치, 쓰임새다.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 ‘쓰기’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소유에 대한 우리 생각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미 쓰고 있는 데도, 쓰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나면 충분한 데도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럿을 가지려고 든다. 목적을 쓰임새에 뒤야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들어, 마치 소유가 목적인양 전도몽상을 한다.

함께 사는 세상

글 • 고 현

내가 금생에 받은 가장 큰 행운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마음의 종교’를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 인연의 길에서 법정 같은 큰 스승을 만나 야망과 욕망의 추구가 아닌 소망과 수행의 삶, 즉 보시행(布施行)을 체득케 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었지 싶다.

스님은 보시의 개념을 돈이나 물질로 베푼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나누는 일’로 해석하셨다. 베푸는 마음에는 높고 낮은 아상이 끼어들 수 있지만 나눔에는 수직이 아닌 수평적 유대를 이룬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곤 했다.

광주 전남 모임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지만 일절 광고나 포스터, 현수막 한 장 없이 무작정 ‘점심 공양 나눔집’을 열었다. 처음 며칠은 음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5인분, 10인분씩 조막살림으로 시작했으나 한 달 만에 40인, 두 달이 되기 전에 80인분의 공양을 준비하게 되었다. 입소문도 무서웠다.

돌이켜보면 북구 각화동 복지관과 협조하여 70세 이상 장애우 노인들을 위해 18년 전 도시락 3, 40개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주말을 뺀 주 5일간 도시락과 밥집, 2백 명의 공양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이 약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불량식품 시비가 일어나본 일이 없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이며, 자원활동자 법우들의 순수한 보시행의 결과이며, 돌아가신 은사 스님의 음덕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유만 있다면 천 명이라도 받고 싶지만 천 원짜리 식당은 계속해서 적자였다. 아마 이마저도 후원해주는 가족들의 회비가 없었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규모가 크거나 재정 상태가 양호한 다른 NGO 단체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항상 능력껏, 형편껏 하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보시란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시락만 할 때에는 몰랐는데 밥집까지 하다 보니 찾아 온 천태만상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통해 공부거리가 계속 생겼다.

어떤 이는 날마다 혼자 와서 점심 공양 한 끼에 식판을 두 번, 세 번씩 머슴밥을 퍼다가 3생의 몫을 먹어치우는 짬식이 짬순이가 있고, 만날 고기 반찬은 없고 풀만 준다고 화를 내는 안면신경 마비증 환자도 온다. 또 날마다 오면서 단 한 번도 현금함에 천 원 한 장 넣는 일 없는 금테 안경 아저씨도 온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는 몽땅 퍼간 뒤 절반쯤 먹고 무엇이 불만인지 남은 음식은 마구 섞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게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식판 들고 빈자리 찾는 걸 뻔히 보면서도 끝날 때 까지 버티고 앉아 계모임(?)을 치르는 아줌마 부대도 오고, 들어 와서 나갈 때까지

욕을 섞어 큰 소리로 떠드는 수라계 대장도 온다. 모두 다 전생부터 굳혀 온 습들을 아직도 닦지 못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내 모습들이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다리가 불편한 한 할머니는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다고 오실 때마다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남기고 가신다. 또 소형 트럭을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매미장사 다니는 어떤 부부는 팔던 푸성귀를 한 아름씩 주고 가고, 고등학교 퇴직 교사 부부는 식사 후 괜찮다고 말려도 식당 바닥을 꼭 청소해주고 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요구르트 아줌마 네다섯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초록색 저금 만 원짜리를 넣고 가기도 한다. 눈매가 무서운 한 할아버지는 소란을 피우거나 식사 태도가 불량한 사람을 마구 혼내주는 군기 반장 역할을 하신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네 종류로 구분한다.

나를 버리고 철저히 남을 위해 사는 헌신적인 이타행(利他行)의 사람, 나도 남도 같이 위하며 서로서로 돕고 사는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의 사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남을 꺾는 이기적인 자리행(自利行)의 사람, 나도 남도 모두 해치는 자포자기의 자해해타행(自害害他行)의 사람이 그것이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서암 스님 법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독하고 무지한 말로 남의 마음 내 마음을 상(傷)하게 하는 것도 살생이고,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 없애버리면 이 또한 죽이는 것이기에 살생이 된다. 먹다 남은 음식 버리는 것도, 하나면 되는 것을 두 개 세 개 사는

것도, 멀쩡한 옷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는 것도 살생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의 의미를 중생의 목숨에만 국한시키지 말라. 그래서 종이 한 장, 낡은 물건 하나라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부드러운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바로 방생(放生)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금은 보석과 모래 자갈이 함께 섞여 돌아가는 그래서 사바(娑婆) 세계인 점심 공양 나눔집은 우리를 공부시키는 또 다른 법당이였다.



고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눈길을 걸을 때

글 • 휴정 선사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말라
내가 걷는 이 발자국
뒷사람의 길잡이 되리니

• 발취 : 「버리고 떠나기」 승가의 기초 교육

고통 바다에서 해매는 내 이웃을 건지리라

글 • 법 정(法 頂)

착한 아우에게

여기는 진주, 논개의 냇이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르게 흐른다는 남강의 진주, 한 보름 전에 해제를 하고 해인사를 나와 내 마음의 고향인 경주-신라 천년의 꿈이 어린 서라벌을 찾았더니라. 석굴암에서 부처님을 뵈옵고, 동해 바다와 향수에 맺힌 수평선을 실컷 보았다. 통도사에서 일주일간 비구계 살림을 마치고 부산, 김해, 마산을 거쳐 여기 진주에 어제 도착했다. 해인사에서 나온 스님(성진 스님-단 하나인 나의 도반이란다) 편에 네 글월 두 통 다 잘 받았다.

이제 새삼스레 또 무슨 말을 하랴! 세상일이란 모두가 다 덧없는 것(무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자…….

너도 커 감에 따라서 차차 알겠지만 우리들이 부모형제를 뺄개치고 산중에 들어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하고 있는 뜻은 그 나고 죽는 바다에서 뛰어내리려는 더없이 큰 욕심 때문이란다.

거짓 없이 너에게 말하마. 형아는 금생뿐이 아니고 세세생생(世生生生) 수도승이 되어 생사해탈(生死解脫)의 무상도(無上道)를 이루리라. 하여, 고통 바다에서

해매는 내 이웃을 건지리로드.

아우야, 산승의 생활이 결코 평안한 기생층의 생활은 아니란다. 하나에서 열까지가 죄다 고행이다. 여기에서 배겨 나는 기질이 드물다.

중생(이웃)을 건진다는 일이 얼핏 듣기에 막연하고 우스운 소리같지만 우리가 구경에 할 일이라곤 자기의 존재를 크게 깨달아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많은 말을 줄인다.)

봄, 우울한 봄일 줄 안다. 졸업이라곤 하지만 인생학교에 새로운 입학이라는 게 분명하리라. 고난에 처할수록 더욱 용기를 내어라. 중인 형아가 하고 싶은 한 마디다.

내일이면 길을 나서 동해안을 따라 '낙산사'까지(강원도 양양) 유랑하련다. 구름처럼 뜻 없이 흐르다가 지치면 가야산으로 되돌아오련다. 내 가슴은 항상 푸르다. '뗏'은 내 길벗이다.

어머님, 할머니님, 두루두루 문안 살피라. 너 부디 심신이 더불어 건강 하여라.

아듀

1959년 3월 10일,
진주에서 법정 합장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임는섬

맑은 가난

글 • 김옥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 법정 -**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일이며 자신의 마음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질이 없다고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물론 상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엔 물질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질이 없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자격 지심이 드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질이나 마음이나 나누는 것은 다 똑같다. 이에 대해 프랑스 작가이자 비평가인 아나톨 프랑스 Anatole France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옳은 말이다.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물질이 됐건 마음이 됐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2020년 중앙모임에서 1년간 활동하였던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0년은 '무소유'란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셨던 법정 스님(1932~2010)의 입적 10주기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스님의 정신을 그리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회원님과 봉사자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욕심내지 않고, 나누고 양보하면서 우리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새해에는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활발한 나눔의 현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님과 봉사자 모든 분이 건강하길 기원드립니다.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사업

①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법회

- 2월 19일(음 1월 26일)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평소 청빈의 가르침에 따라 설법전에서 추모 법회를 길상사 주관으로 봉행하였습니다.

② 법정 스님 저서 전자책 작업

-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해를 맞아,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작업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법정 스님 유언 발표 당시 “스님의 글을 읽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언제든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더불어 스님의 저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존 관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서적은 <무소유>,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비롯하여 총 17권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③ 비구 법정 사진전

-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추모하는 의미로 길상사 내 길상선원에서 법정 스님 사진 전시회(2월 18일 ~ 3월 31일)를 진행했습니다. 생전 스님의 모습을 불일암과 길상사에서 가까이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여 이종승 작가, 우경 유동영 작가 외 몇몇 사진작가의 사진을 모아 경내 길상선원에 소담하게 전시하여 우리 곁을 떠나신 스님의 생전 모습을 다시 만나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④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 추사체를 연구하며 금강경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의 개인전 (5월 27일 ~ 6월 28일)이 설법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가는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명문장을 발췌해서 쓴 작품 40여 점과 금강경 대표작품 및 계승 20여 점 그리고 반야심경을 비롯한 일반작품 20여 점 등 총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전시에서의 작품판매 수익금은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⑤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스님께서 생전 수행하셨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스님의 고향 마을을 시작으로, 미래사,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봉은사, 송광사 및 불일암, 길상사를 배경으로 기도에 정진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 경관상 아름다운 모습 등을 널리 알릴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기는 뜻으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125명의 참여와 총 361점의 사진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사진은 전문가 심사위원과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9월 9일(수) 입선 20명과 참가기념작 7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마 음 사 업

① 월간 ‘맑고 향기롭게’ 발행

- 2020년 12월 통권 310호 발행 / 월평균 9,500부 발간
-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외 교도소, 군 법당, 병원, 복지시설에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소식지 발송 정기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연꽃 스티커 배포

-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전국 사무국과 길상사 진영각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③ 맑고 향기로운 가게(불교문화용품 판매점) 운영

- 길상사내 불교문화용품 판매점인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본회는 한국의 전통과 불교를 아우르는 문화 상품을 시범 개발하고, 자연을 아끼고 되살리는 친환경 물품 및 천연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가게 운영을



통해 말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를 더욱더 알리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브랜드 포교 활성화를 위해 심볼과 로고를 활용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에 재환원하고 있습니다.

④ 말고 향기롭게 이사회&대의원총회

- 4월 9일 대의원총회(35차)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으로 선출직 대의원 승인, 이사 9인 선출, 감사 2인 선출, 5대 이사장(덕조 스님) 호선과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의결(중앙, 대구, 경남, 광주 지부),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 심의 의결,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중앙, 대구, 경남, 광주 지부)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⑤ 모바일 앱(APP), SNS 홍보

- 스마트폰 사용자 증대에 따라 말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과 페이스북, 카카오프로젝트 SNS를 활용하여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과 스님의 글, 말고 향기롭게의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⑥ 법정 스님 진영각 관리

- 법정 스님 진영각을 관리하고, 말고 향기롭게 간행물과 연꽃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⑦ 법정 스님 책읽기 모임 진행

- 마음을 청정하게 맑히는 마음사업의 일환으로 법정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기는 “말고 향기롭게 필사모임”을 운영하여, 법정 스님 책읽기 및 필사모임을 통해 법정스님의 글을 마음에 새겨 늘 청정한 마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⑧ (주)샘터 출판사 문화 교류 협약서(MOU) 체결

- 월간 <샘터>가 경영악화로 인해 창간 49년 만에 통권 598호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독자들의 응원 및 기업 후원으로 잡지 발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샘터의 노력에 시민모임 말고 향기롭게도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양 기관 간에 문화 사업을 교류하여 인간 본래의 심성을 맑히고, 인간미와 전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불교시민운동과 독서문화운동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고자 문화 교류 협약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행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문화사업,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 독서문화와 문인 관련 문화사업,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 등을 협력 교류하여 말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활동입니다.

서약서 체결은 지난 2019년 12월 15일 길상사 창건 22주년 기념법회에서 여러 불자와

여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교환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에 맞춰 스님의 여러 산문 중 “행복, 자연, 책, 나눔”이란 주제의 글을 가려 뽑아,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및 샐터 50주년 지령 600호 기념 증간호로 <스스로 행복하라>를 출간하여, 샐터 독자들에게 법정 스님의 사상을 전했으며, <스스로 행복하라> 인세 수익은 월간 <샐터>의 지속적인 발간에 도움이 되고자 전액 기부하고,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법회일(2020년 2월 19일, 음력 1월 26일)에 참석하는 참배객에게 <스스로 행복하라>를 선물하였습니다.

⑨ 문화행사 및 홍보 활동

- 부처님오신날에 버스킹, 맑고 향기롭게 홍보부스 등 작지만 알찬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세 상 · 자 연 사 업

① 맑고 향기롭게-대학생 장학사업

- “맑고 향기롭게 장학사업”은 1994년 3월 26일 법정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에서 등록금 지원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 그리고 타 장학사업 선발에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회 대학생 장학사업은 서울 소재(법인 근교) 17개 대학 대학생 공모와, 지부추천을 통하여 소득분위, 성적, 학생역량,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활동 내역등을 최종 검토하였고, 총 180명의 신청자 가운데 19개교 49명의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하여, 6월 26일(금)에 온라인으로 수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0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사장 스님 축하말씀과 더불어 사무국에 직접 방문한 남, 여 대표 학생의 장학증서 수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1994년 ~ 2020년 장학사업 : 총 766명의 중·고·대학생 / 1994년 ~ 2005년까지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06년 ~ 2019년까지 468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20년 49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총지급액 : 약 11억

② 복지시설 정기 방문 자원 활동(코로나19로 하반기부터 활동 중단)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 매월 둘째 토요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진인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오전에는 청소 및 주방 봉사, 오후에는 어르신 놀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③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 매주 목, 금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
- 현재 460여 가구 지원
- 연 3회 명절(설날, 정월대보름,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특별 후원
- 3월~10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

④ 연말 김장 나눔

- 11월 26일(목). 겨울 김장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큰 근심거리를 넉넉한 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460여 가구에 각 10kg씩 전달하였습니다.

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밝히기(관동) 운동

- 맑고 향기롭게 초창기 진행하였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동 밝히기 운동을 되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자신이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⑥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자 지난 3월 12일, 코로나 피해 지원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인 BTN 불교TV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장 덕일 스님은 "법정 스님께서는 항상 이웃이 어려울 때 같이 나눠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됐는데 회원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이미 확진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작은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성금 전달의 취지를 밝히셨습니다.

BTN으로 모금되는 성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기초 위생용품

전달하고, 의료기관에 방호복 세트, 보호경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나눔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하루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활발한 나눔의 현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님과 봉사자 모든 분이 건강하길 기원드립니다.

⑦ 동전 모금 캠페인 진행

- 가정이나 회사 서랍 속에서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모아 빈곤층 노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길상사 방문객들에게 동전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모금을 전개하였습니다.

⑧ 정기 재정 후원 사업

- 부름의 전화(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봉사단체) 정기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⑨ 생태사찰 가꾸기 진행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 소득공제 안내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단체로서 100% 회원들의 재정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은 회원 개개인이 자신과의 약속으로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자동이체, 온라인, 지로) 까지 스스로 합니다. 또한 설립 목적(정관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 되어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2021년 탁상달력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새해 탁상달력을 12월 초에 발송해드렸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후원이 없고 11월 ~ 12월 말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1년 1월 중순에 배송해드립니다.) 본 모임에 후원하시면서도 개인 사유로 우편물을 수신 거부하신 회원님의 경우 달력 발송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을 받지 못한 경우 중앙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 달력은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기에 1부씩만 증명하오니 너그럽게 이해 바랍니다.

길상사 벽걸이 달력은 길상사 창건 기념 법회(12월 13일(일))날 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달력은 (사)맑고 향기롭게 5대 이사장(덕조 스님)께서 촬영한 사진작품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활동 안내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소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반조리 식품으로 나눔을 대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수)/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 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종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12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12월 2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 기도	12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2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 기도	12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청년회법회, 중·고등법회, 어린이법회, 새신도교육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2월 5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지장재일

- 일시 : 12월 2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2월 8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

- 일시 : 12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지 기도


- 일시 : 12월 21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길상사 창건 23주년 기념 법회

- 일시 : 12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길상사 창건 23주년 기념 법회

 12월 13일(일) 오전 11시 / 극락전

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으로 수행하고
밖으로 교화하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어떤 종교 단체를 막론하고
시대와 후세에 모범이 된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어진 가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제이지만
선택된 맑은 가난, 곧 청빈은 아름다움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는 가난한 절이면서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부담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 法 頂 -





맑고 향기롭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웃에게 어떤 일을 나누었는지 스스로 묻는다.
잘 산 한 해였는지 허송세월을 했는지 점검한다.
하루 한 가지라도 이웃에게 착한 일을 나누면
그날 하루는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날이다.

- 법정 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